

정보통신사용자 요금체납문제 대책회의

우리협회는 정보통신이용자 요금체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업체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통신, 향만전화, 나우콤 등 각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구조적인 요금체납문제 해소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은 이용요금체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입자 실명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주민전산망의 DB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보서비스 가치지불에 대한 대국민 마인드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업자 협의회를 우리협회내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MSN관련 관련업체 대책회의

우리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5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네트워크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9월1일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PC통신, 데이콤, 나우콤, 연합통신을 포함하여 PC통신 및 LAN사업 13개사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업체와 합작으로 MSN(Micro Soft Network)의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PC통신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언론사의 독점적 지위 및 PC메이커의 매매 차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지난 9월 1일 MSN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 국내업체가 MS사의 전략에 동조해 국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미 MS사나 한국MS사는 법인 설립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MS사의 고도 전략일 수도 있음을 감안, 심도있게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MS사가 국내 대기업, 언론사등과 합작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은 국내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과 MS사의 기술을 이용, 국내 시장을 석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MS사 지분 51%가 현금출자가 아닌 윈도95등 제품으로 대체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 최근 언론의 보도내용을 확인 후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향후 PC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PC통신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MSN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95 정보통신상호운용 및 첨단컴퓨터전 준비

우리협회와 정보통신유관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95 정보통신상호운용 및 첨단컴퓨터전(ION & HIGH-TECH '95)에 참여할 업체와 워크숍 주제 및 연사가 확정됐다.

광주 비엔날레 행사와 겹들여 실시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는 웅진미디어 등 28개사(67개 부서)이다.

또한 오는 10월26일~28일 3일간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상호운용성, 멀티미디어 기술 표준화, 인터넷, ATM기술, 무선통신, 분산처리, 네트워크 관리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9월 29일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를 가졌다. 인터넷의 불건전정보 유입 방지대책과 건전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 지방검찰청 한봉조 검사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전산원 오익균 부장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기술적 방지대책", ETRI 임채호 선임연구원의 "불건전정보의 기술적 방지대책"등을 포함하여 4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주제토론이 있었다. ◆